

경유 운반선 좌초 유처리제 투입!

울산 앞바다에 화학연료유 77톤 유출 ... 기상악화로 방제작업 난항

4월8일 오전 2시45분 쯤 울산시 동구 방어동 화암추등대 앞 해상에 파나마선적 1525톤급 화학연료 운반선인 우민호(선장 김경이)가 좌초됐다.

사고가 나자 해경이 출동해 선장 등 선원 5명은 모두 구조됐으나 배 밑바닥에 있는 연료탱크가 파손되면서 연료유(경유)가 유출돼 해상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우민호에는 약 77톤의 연료유가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8일 오전 4시를 기해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이 나빠 울산해경이 방제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 선박은 4월7일 사고지점에서 2km 가량 떨어진 울산항 1묘박지에서 묘박중이었으나 높은 파도와 바람에 떠밀려 해안으로 오면서 좌초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파고 3m의 폭풍주의보가 발효돼 방제작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Chemical Journal 2003/04/11>